

전주국제드론산업박람회 10월 열린다 '책콩20' 도서 사전예약제 도입

10월 22~24일 전북대 일원서 '글로벌 드론 레저스포츠 선도도시 전주' 주제 개최

전주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글로벌 드론 레저스포츠 선도도시 전주'를 주제로 '2024 전주국제드론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기간 펼쳐지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와 연계해 진행되는 이번 박람회는 전주지역 드론기업과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팔복동 소재) 입주기업, 드론에 관심 있는 시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참가한 경제인과 내빈 등에게 전주시 드론 산업 비전을 소개하고,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성공개최를 함께 기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먼저 박람회 본 행사에 앞서 드론 레저스포츠의 발전과 드론축구월드컵의 준비상황 및 나아갈 방향 등을 모색하는 '지식정책포럼'이 오는 10월 21일 오후 4시, 전주첨단벤처단지에서 열린다.

이어 박람회 3일 동안 전주시 드론 산업 비전과 드론 레저스포츠 선도도



전주시는 오는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글로벌 드론 레저스포츠 선도도시 전주'를 주제로 '2024 전주국제드론산업 박람회'를 개최한다.(사진은 2024CES 드론축구 모습)

시 전주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드론 기업전시관 △드론 체험관 △드론 사진·영상 공모전(9월 중 공모 예정) 수상작 전시 등 행사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과 소운동장 일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전북대학교 소운동장에는 박람회 기간 내내 시민들이 드론을 보며 쉽게 알고 즐길 수 있도록 홍보관과 체험관이 운영된다.

또한 △(주)드론프릭, 스카이에어(주) 드론레이지 △(주)우리아이오 △

드론테크 △(주)디클래스, (주)비아 등 전주지역 드론기업과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입주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만날 수 있는 '드론 기업전시관'이 3일간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마련된다.

이와 함께 시는 이번 박람회 개최식을 통해 내년 9월 전주에서 최초로 열리는 '2025 전주드론축구월드컵'의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드론축구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드론축구월드컵 조직위원회 발대식'도 가질 예정이다.

여기에 박람회 기간 동안 '2025 월드컵 홍보관'이 운영되고, 전국 각지역 드론축구 대표팀과 대학부팀, 유소년팀이 대거 참여하는 드론축구 전국대회(전주시장배, 전북대학교총장배)도 개최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드론에 관심 있는 시민과 관계자, 세계경제인들에게 전주시 드론산업 비전과 글로벌 드론 레저스포츠 위상에 대해 알리고, 함께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9월 2일부터 전주책사랑포인트 통한 서비스 시행

전주시민들은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 20'을 통해 원하는 도서를 예약 후 가까운 서점에서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오는 9월 2일부터 도서 구입 시 정가의 2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도서 예약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도서 예약서비스는 전주책사랑포인트 '책콩20' 서비스에 가입한 시민이 전주도서관 누리집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도서를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기능으로, 서점에 도서가 도착하면 방문 결재한 후 도서를 수령하면 된다.

또한 도서를 예약하거나 서점에 예약 신청한 지료가 도착하면 이용자에게 카카오톡 알림톡이 발송돼 예약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용자의 46.4%가 '책콩20'으로 도서를 구입할 때 '문자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예약하고 구입하

다'고 응답하고, 예약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의견이 90.2%로 나타나는 등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예약서비스를 운영기로 결정했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한 '책콩20' 이용자는 "원하는 책이 서점에 없는 경우 바로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쉬웠는데, 미리 주문 예약하는 프로세스가 있으면 기다릴 필요 없이 알림톡을 받고 바로 수령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 '책콩20' 서비스는 전주 시민 누구나 전주시립도서관 회원가입 및 '책콩20'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도서 구입비를 할인받을 수 있으며, 도서 구입비 36만3500여 원의 도서를 구입해 약 12억1200만 원의 도서 구입 비용을 할인받았다. /김육기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아파트 실외기 화재 예방 각별한 주의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봉화)는 여름 막바지 폭염 속 에어컨 실외기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22일 전했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년간(2021년 8월 15일~2024년 8월 15일) 에어컨으로 인한 화재는 총 842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에어컨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273건, 2023년은 293건이었지만, 올해는 지난 15일까지 222건이 발생해 증가하는 추세다.

이러한 에어컨화재의 주된 요인은 전선 손상, 실외기 주변 이물질, 장시간 사용 등으로 인한 과열 등이며, 실외기는 햇빛이나 빗물 등 외부적 요인이 더해져 화재발생 위험성이 크다.

무더운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해 생활 속 자율점검과 안전수칙 준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전선이 손상되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는지 점검 및 단독 콘센트 사용 △실외기 내·외 먼지 제거 및 실외기 주변 가연물 적체 금지 △에어컨 작동 시 실외기실 셔터 등 열기 △실외기 설치 시 벽면과 최소 10cm이상 이격 등이 있다. /김육기 기자

9월 '독서의 달' 행사 풍성

전주시, 47개 도서관서 특별행사·전시·공연·체험 등 진행

독서의 달 9월을 맞아 '책의 도시' 전주에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가 펼쳐진다.

전주시는 오는 9월 한 달 동안 '독서의 달'을 맞아 전주시 도서관 47개 관(시립도서관 12, 복합문화센터, 작은도서관 34) 등 전주 곳곳에서 특별행사와 도서 전시, 공연, 강연, 체험 등 총 84개의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9월 '독서의 달'은 국가가 국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된 달로, 시는 각 도서관별로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특별행사로 30개 관(시립도서관 12개, 공립작은도서관 26개, 복합문화회센터)에서 9월 한 달 동안 연체 도서를 반납하는 이용자들에게 대출 정지를 해제해주는 △

연체해방의 날이 있으며, 이 외에도 △과년도 잡지 배부 △책콩20 도서 대대출자 포인트 지급 △책콩20 SNS 인증 이벤트 등이 있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 단위 등 모든 세대를 위한 공연으로 △달빛공연 '플루트로 만나는 클래식과 대중음악' (금암도서관) △테마가 있는 열린음악회(효자동서관) △토요가족극장 '버블 매직쇼' (삼천도서관) △인형극 '쥐와 고양이, 책을 먹는 도깨비' (완산도서관) 등 5개 도서관에서 9개의 공연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여기에 독서 체험 행사로 △1박 2일 도서관 가자! 오늘 밤은 우주로 1216(전주시립도서관 북점) △가을 꽃으로 꽃꽂이하키(평화도서관) △나만의 책갈피 만들기(인후도서관) △팝아트 하트책 접기(동문현책도서관) △업사이클링 팝업북(복합문화회센터)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연화정도서관) 등 15개 도서관에서 24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주 인문학으로 물들다(전주시립도서관 북점) △여행에 다가가다, 세계 속으로(다가여행자도서관) △북클럽 연구소가 이어키하는 '작지만 빛나는 세계'(완산도서관) △장강명 작가 강연(송천도서관) △시가 머무는 숲 '박연준' 시인 강연(학산숲속시장도서관) 등 17개 도서관에서 30개의 강연 프로그램도 펼쳐질 예정이다.

이외에도 독서의 달 9월 전주지역 13개 도서관에서는 △글로 만난 세계 '수상작 원서·번역서 전시' (서신도서관)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삼천도서관) △그림책이 있는 푸른 정원 이야기 (금암도서관) 등 도서관별로 각각 다른 주제로 이용자들을 위한 주제별 도서 전시도 만날 수 있다.

독서의 달 프로그램의 세부 일정 및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lib.jeonju.go.kr)을 참고하거나, 해당 도서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창 도서관부장은 "다채로운 독서의 달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도서관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하고 책과 함께 누리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원광대 학생 기업탐방 실시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회장 이선홍)는 지난 21일 지사에서 원광대학교 학생 20여명을 대상으로 (주)지에스씨넷과 연계하여 기업탐방 및 진로 취업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안전교육 특강, 적십자사 인도주의 활동 소개, 제빵 봉사활동 등을 통해 실제 기업의 현장 분위기와 직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인사 담당자로부터 취업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직접 하고, 그에 대한 유익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이선홍 회장은 "이번 기업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현장 경험과 담당자의 조언을 얻어 취업 방향성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미래안전리더 전북119청소년단 안전체험캠프 참가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경수)는 지난 21일 제5회 전북119청소년단 안전체험캠프에 전주완산 위즈어린이집 119청

소년단원들이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체험캠프는 임실의 전북 119안전체험관에서 각종 물놀이 안전 체험과 어린이 안전마를 체험으로 안전에 대한 지식을 생생한 체험으로 직접 배우고 느끼는 활동으로 진행됐다.

캠프에 참가한 전주완산 위즈어린이집 119청소년단원들은 직접 체험하며 안전한 행동 습관을 배우고, 단체활동을 통해 리더십 함양과 단원들과의 절

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이번 캠프에 함께 한 위즈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소중한 체험의 시간이 됐다"며 "안전에 대한 지식을 체험위주로 배우는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감사를 전했다.

박경수 소방서장은 "각종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급한 상황 발생 시 올바른 방법으로 대응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안전리더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김영태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